

社說

양질인력 양성위해 내부개혁 필요

— 매년 줄어드는 취업문을 보며

현대를 일러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경쟁이 없는 분야가 없고 날이 갈수록 그 경쟁의 양상 또한 무제한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 이른바 사회초년생들의 경우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긴장과 더불어 그 제정의 어려움이 한층 더해지고 있다.

그러기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돼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놀랄만한 보도가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대학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취업률을 가장 첫번째 항목으로 하여 제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야 각 대학들이 '4년제 대학'을 가르치고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소정의 책임을 다하라는 수적 대량생산에서 벗어나, 졸업생들의 효율적이고 장래성있는 취업을 위해 발을 뚫고 나서는 적극 대량생산으로 전환하는 길에 서게 되었다. 요컨대 '일꾼을 길러 놓았으니 쓸테만 쓰시오'가 아니라 '이만한 양질의 인력이었으니 스카웃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차원으로 까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대학교 이와같은 시대의 추세를 잘 파악하여 취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체 내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보다 준비하는 내부개혁을 거쳐 시대를 앞서가는 대학으로의 능동적인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인력을 키우는 일은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 그것이 곧 취업경비이다. 우리

대학에서 총장 직속으로 취업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며 이전에 교수 9인으로 구성된 취업지도위원회의 신설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기구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 취업정보지를 발간한다든지, 취업자료를 편찬하여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 마련된다든지, 특수분야나 여학생 취업의 전문성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일들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의 진로를 미리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학중에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성실한 노력이 요청된다. 급격히 이르러 그 수요가 한층 높아진 외국어의 능숙한 구사나 전산처리 기술과 관련된 개인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교과과정에도 반영하는 일제적인 전과목 교과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노동시장의 수요가 절절히 조망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에서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필요한 인력관리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정한 산학협력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애써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보다는 더욱 중요한 일은,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눈에 보이는 체계에 의한 관리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학구성원 전체의 공동관심이라는 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정적이라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문, 이제는 그것이 강건히 뿌리박아야 한다.

부총장·학생 의견교환... 재협상기로

직원 잘못 전달... 조 부총장에 항의 방문

학생측 난항거듭시 집중 투쟁기로

지금은 등록금 협상중

수원캠퍼스 등록금 1, 2차 협상이 별 소득없이 끝나게 되자 학생측은 제 4차 확대운영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시한을 4월 30일로 연기하라는 제의를 한 바 있다.

지난 7일 제3차 확대운영위를 통해 조 부총장 및 학교관계자에게 1차 협상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낸 총학생회는 93년도 합의서 이행 부분과 등록금의 일일적 책정, 그의 학내 공사 진척도 - 도서관(9월 완공예정), 대학문화거리(8월완공예정) - 관련문제, 산업대학과 진학으로 수계투쟁 등에 대한 협의를 갖고 1차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학교 직원은 2명만이 부총장실과 협상장을 입장하며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양상을 주었고, 이틀 지났음에도 협상에 대한 조 부총장의 응대도 12시에도 종으로 수업을 배는 일은 일일한 수업일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학생측은 "학내 교육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

단 조 부총장은 학생측이 시간 상이 별 소득없이 끝나게 되자 학생측은 제 4차 확대운영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등록금 납부시한을 4월 30일로 연기하라는 제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운동본부 발족식이 끝나고 가졌던 부총장실 회의방문을 통해서 부총장은 자신의 입장을 학생들에게 일일부분 전달할 수 있었고 "강의가 없는 시간이라면 언제라도 협상에 응해줄 수 있다. 반 12시에도 종으로 수업을 배는 일은 일일한 수업일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학생측은 "학내 교육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



○ 지난 18일 학생들이 등록금 협상이 무산되자 조 부총장에게 항의 방문한 가운데 조 부총장과 이희하 부총학생회장 등이 만나고 있다.

에 응하겠다"며 극강적인 반응을 보여 협상은 다시 본 태도에 오르게 되었다. 학생측은, 제협상이 무산될 경우 등록금 고지서를 반납할 것에 대해 미리내 한층더

에서 나오는 명서를 청탁대로 보내어 학교측의 불성실함을 고발할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측은 이후의 협상절차에 청탁대로 보내지나 한층더

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등록금 협상이 진전없이 난항을 거듭한다면 학교 측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

출판문화와 대학수준의 함수관계

— 되돌아보는 '교양교재반납'을 바라보며

지난 주 서울캠퍼스에서는 학기초 신입생들에게 판매한 교양서적 중 1천2백권 가량이 환불을 위해 학교 출판국으로 반납되었다.

한편, 교양서적을 '교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서 정해준 책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면 국경교과서도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의 무엇이 다른가? 라는 발문도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학교 출판국의 역할과 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안목이 될 것이다.

우리학교 출판국은 1960년 문공부 제57호 등록특허 1백여종의 각종 서적을 출판해 왔다.

또한 출판국의 주요 업무가 '대내 교양과정의 교재'를 출판하는 한편, 교수의 논점, 연구서적, 각 단과대학의 기관지 발행'인 것으로 매년 출판국에서 발행되는 '요람'에 명기되어 있다.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현재 출판국은 교수인 출판국장 1명, 과장을 포함한 직원 2명, 사무보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중 1명은 학교 사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전문적인 출판을 담당할 만한 직원은 교과 1명밖에 안되는 것이며, 대외 영업은 물론 양서의 출판도 기대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국내의 타 대학이 많은 양의 교양서적을 출판하고 또 그것이 신입생을 위한 권장도서 목록에 들어 있는 것과,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전문 영업직원을 영입하여 미국 대학에서 수천명이나 이민민에서 '상공했다'는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출판국은 그 대학의 도서관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부서이다.

현재 우리학교 출판국을 활성화시키고 이에는 판매처를 되어버린 학년초의 교양교과서 환불을 막는 것은 출판국의 제철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관점은 물론 마케팅 담당직원이 있어야 하며 예산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좋은 필자를 찾아서 충분한 보수를 보장할 경우 좋은 책이 나올 것은 자명한 것이며, 그런 책이 나오면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책으로 교재를 삼을 경우 91년부터 계속되는 '교양교과 반납'사동은 사라질 것이다.

대학평가제 도약의 기회로

경희발전 5개년계획안 수립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설명회

지금 대학은 97년 교육개발과 96년 대학평가인정제에 종속을 받고 있다.

대학마다 학과발전계획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으며, 이는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위기감속에서 지난 17일 서울캠퍼스 기획위원회와 학생회 간부학생들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캠퍼스 기획위원회가 대학종합평가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현재 우리학교의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제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선 대학종합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우리학교의 현상점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의 공개가

있었고 기획위원회와 학생간의 질의응답형식의 논의를 가졌다. 대학종합평가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등 7개의 평가 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 연구, 교수 부문이 전체점수의 58%를 차지한다.

이에 우리학교는 대학종합평가제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기 위하여 경희발전 5개년 계획안을 내놓고 지난 1월에 '대학종합평가 기획단'사무국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리학교는 90년부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종합평가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에 대한 준비는

우선 개선사업에서는 올해 2학기내에 시행을 목표로 각 평가구분별이 준비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학교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강사 의존성 △연구실적 △대외장관직 지급을 등이다.

기획위원회의 사무국장인 이성호(정경대·회계학)교수는 우선 시간강사의존성에 대해서는 교과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점 즉 영세한 학과구조와 학생들의 무책임한 강의관성요구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연구실적은 현안과, 중대 등 대학교의 비교육성에 밀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는 우리학교의 이중적인 연구실적이 비교육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외장관직 부문에서는 거의 침묵적이고 말로만 서 등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대했다.

또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우리학교는 취업률과 학생탈락률, 교수 크와학술적 기여, 연구수행능력에서도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한편 이교수의 설명후 강의평가제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학교측은 대학평가제 실시에 따른 개선방안과 세부사항에 대해 의논하러 있던 반면

학생들은 대학평가제 자체에 대한 비판과 그에 따라 우려되는 대학의 위상전락에 비중을 두었다.

또 학생측은 경희발전 5개년 계획에 적극 동참할 3차 협의 구성을 요구하였지만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없는 자 둘을 던져라(!!)"

POSCO메세지 개강편

갈 길은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뭐가 하기는 열심히 한 것 같는데 남은 것은 없더라? 학년말이면 어지거지서 들리는 푸른 중의 하나 - 바로 1년 동안 많은 우물만을 여러개 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올 1년도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죠?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면 목표도 세팅은 되고, 계획도 아주 무성. 머리가 너무 무거워져서 쏘리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오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까?

이번에는 일정한 목표, 저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깊이있는 우물을 파보십시오. 속이 깊고 얕은 경험들로 막 채워진, 기억에 남는 대성업일이 될 것입니다.